

보육교사를 위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a Korean Home Environment Scale
for Infants and Toddlers

김정민(Jung Min Kim)¹⁾

김지현(Jihyun Kim)²⁾

정현심(Hyun Sim Jung)³⁾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at developing a scale to evaluate Korean home environments for infants and toddlers for the purpose of being used by teachers caring for infants and toddl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50 mothers of 0- to 2-year-olds. Mean, SD, χ^2 , Cramer's V, factor analysis, Pearson correlations, Cronbach's α were calculated in order to analyze the outcomes of this study. As a result, 38 items of the scale were found to be satisfactory in terms of item distribution and item discrimination. Four factors with 21 items were extracted from the factor analysis: 'developmental stimulus', 'responsivity', 'encouragement of verbal interaction', and 'arrangement of daily routines'. Our analysis of the correlation of this scale with SES, HOME, and children's developmental outcomes showed acceptable concurrent validity.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scale was high.

These results identify this scale as a valid and reliable measure of the Korean home environment for infants and toddlers.

Key Words : 가정환경 척도(Korean Home Environment Scale), 영아(infant/toddler), 척도개발(development of a scale).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²⁾ 대구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Corresponding Author : Jihyun Kim, Dept. of Child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30 Geumrak 1-Ri Hayang-Eup Gyeongsan-Si Gyeongbuk 712-702, Korea
E-mail : jihyunkim@cu.ac.kr

I. 서 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며, 생후 첫 몇 년간 아동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사건들은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가족은 인간이 접하는 최초의 사회화 기관으로(Shaffer, 2005, p. 704), 아직 또래의 영향력을 거의 받지 않는 영아에게 있어 부모와 가정환경의 영향력은 크다. 이처럼 가정환경에서 맺는 부모자녀관계와 물리적인 가정환경에 대한 영아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부모와 자녀의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게 된 현대 한국사회에서는 비록 가정의 많은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었지만 오히려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측면은 더욱 강조되고 있어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환경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이 발달 지체를 겪을 확률이 1.3배 높다는 Brooks-Gunn과 Duncan(1997)의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생의 초기에 불리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발달적 지체를 예방하기 위해 영아가 생활하는 초기 가정환경에서 제공되는 자극의 유형이나 양과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개발이 필요하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력이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고(장영애, 1987), 자녀의 월령이 어릴수록 자녀의 발달에 어머니가 의식적으로 관심을 더 많이 보인다는 선행연구(윤형주·조복희, 2004)는 다른 발달적 시기보다 영아기의 가정환경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영아가 접하는 가정환경은 영아의 인지·언어 발달(김종순, 1990; 이영, 1980; Bradley, Caldwell, & Elrado, 1977; Bradley et al., 1989; Fuligni, Han, & Brooks-Gunn, 2004; Linver,

Martin, & Brooks-Gunn, 2004; Stevens & Bakeman, 1985) 및 사회·정서 발달(김종순, 1990; 이영, 1980; Fuligni et al., 2004; Linver et al., 2004)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영아기의 가정환경은 영아기 이후의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Bradley et al., 1989; Hanson, 1975; Ramey, Yeates, & Short, 1984; Stevens & Bakeman, 1985), 초기 가정환경에서 받는 자극이 이후의 발달을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가정환경에서 받는 자극이 아동의 다방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가정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로 이어진 것은 Dave(1963)와 Wolf(1964)에 의해 가정환경 검사 도구의 개발이 구체적으로 시도된 이후이다. 이후 Caldwell과 Bradley는 가정환경 자극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Environment)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연령에 적합한 척도들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2000년대 들어 0-3세(IT-HOME), 3-6세(EC-HOME), 6-10세(MC-HOME), 10세 이상(EA-HOME)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HOME(Caldwell & Bradley, 2003)을 새로이 발표하였다. HOME 척도는 훈련받은 관찰자가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가정환경의 '질'에 대한 측면을 관찰하거나 부모를 면접하여 측정하는 도구이다. HOME이 개발되기 전에 많은 연구자들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구조'적 변인으로 측정하는데 그쳤지만, Caldwell과 Bradley는 가정환경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적인 변인에 주목하여 다방면의 가정환경 자극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

실이지만(곽금주·유제민·김정미, 2007; 윤형주·조복희, 2004; 이주리, 1992; 이지연·곽금주, 2008; Bradley et al., 1977; Brooks-Gunn & Duncan, 1997), 가정환경 변인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보다 아동의 발달을 유의미하게 더 많이 설명하며(김정미·곽금주, 2007; 장영애, 1995; Bradley et al., 1977; Bradley et al., 1989; Stevens & Bakeman, 1985), 영아기일수록 가정환경 변인이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보다 영아의 발달을 설명하는 부분이 더 크다(Bradley et al., 1989).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빈곤하거나 교육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아동의 발달지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환경이 갖추고 있는 물리적 환경 조건과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행위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 다각적 측면으로 설명되는 가정환경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후 발달 지체를 예언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환경 변인의 중요성에 관심을 두고 1980년대부터 HOME 척도의 타당화 연구 및 가정환경 변인과 아동의 발달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영아기 가정환경 척도에 대해 이영(1985)이 한국 영아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연구를 하였으며, 아동기 가정환경 척도에 대해 장영애(1984)와 이주리(1992)가 타당화 연구를 하였다. 유아기 가정환경 척도는 최근에 개발된 EC-HOME(Caldwell & Bradley, 2003)을 가지고 김정미와 곽금주(2007)가 타당화 연구를 시행하였다. 가정환경 변인과 한국 아동의 발달 결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 가정환경이 아동의 다방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곽금주·김정미·유제민, 2007; 곽금주·유제민 외, 2007; 김종순, 1990; 김혜경·조성연, 2002; 이영, 1980; 이지연·곽금주, 2008; 장영애, 1987, 1995; 장영애·서용선, 1983). 그러나 기존의 가

정환경 척도 개발과 발달 관련 연구는 Caldwell과 Bradley가 개발한 HOME 척도를 한국 샘플에 적용하여 타당화를 하고 이를 연구에 활용했을 뿐,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 맞는 가정환경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왜냐하면 유아기와 영아기 부모에게 집단주의 양육가치가 높게 나타나는 한국 문화(김미정, 2001; 이완정·현온강, 1999)에서는 부모-자녀간에 상호결속, 상호의존성 및 결속을 강조하고(민하영·이영미, 2009; 이소은, 1999), 학문적 성취를 출세의 수단으로 인식하여 영아기부터 조기교육 열풍(우남희·김현신, 2004; 이소은, 1999)이 불고 있는 등 한국의 자녀양육 문화와 서양의 자녀양육 문화는 다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영아용 가정환경자극 척도는 1980년대에 이루어진 타당화 연구(이영, 1985)가 전부여서 최근 한국 사회에 적합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이 요구된다.

가정환경 자극에는 영아의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환경으로 부를 수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관계까지 포함된다. 기존에 영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가정환경 척도에서도 이러한 영역들이 하위척도로 도출되었다. 이영(1985)은 Bradley와 동료들(1977)이 사용한 HOME 척도를 한국 샘플에 타당화 하여 물리적 환경, 적절한 놀이감의 구비 상태와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성, 영아의 행동에 대한 훈육적 태도, 어머니의 모성적 태도, 일상생활에서 주는 자극의 다양성의 하위척도를 도출하였다.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IT-HOME에서는 학습자료, 반응성, 수용성, 조직화(일상생활의 조직화), 관여(발달에의 관여), 다양성(경험의 다양성)의 하위척도가 새로이 정립되었다. HOME 척도에 대해 다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의 수

를 줄이고 요인 내 문항들의 개념적 연관성을 높이는 작업도 수행되었는데, Stevens와 Bakeman (1985)은 Bradley와 동료들(1977)의 척도를 다시 요인분석 하여 지적 발달 지원, 언어적 반응, 비처벌의 세 가지 요인으로 된 21개 문항의 척도를 재구성하였으며, Fuligni와 동료들(2004)은 학습과 문해를 위한 지원, 영아에 대한 온정, 부모의 언어적 기술, 비적대성의 4가지 하위척도로 HOME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적은 수의 문항과 개념적으로 연관된 문항으로 구성된 요인을 통해 가정환경 변인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척도를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 영아의 가정환경 척도를 개발하여 한국 영아의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가정환경의 질적 측면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영아를 보육하고 영아의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영아가 속한 가정환경의 질을 파악함으로써 영아의 발달을 예측하고 부모에게 바람직한 가정환경 구성에 요구되는 역할을 조언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문항을 제작하여 문항양호도와 타당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타당하고 신뢰로운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문항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문항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2-1.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문항의 구성타당도는 어떠한가?
 - 2-2.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문항의 공인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문항의 신뢰

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전국의 만 0-2세 영아(영아의 평균 월령 18.5개월)가 포함된 250가족을 임의 추출하여 그 어머니 또는 주양육자(어머니 95.4%)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영아들은 6개월 단위로 집단을 나누어 각 집단별로 유사한 비율로 모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가족은 전화로 조사 협조를 부탁드리고 동의를 얻었다.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대상 영아들의 나이 및 성별은 고른 분포를 보였다. 아버지의 직업으로는 사무직(25.2%)과 자영업(20.0%)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어머니의 경우에는 대부분 주부였다(86.4%).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전문대를 비롯한 대학 졸업이 유사한 비율로 많이 차지하였다. 가족의 월평균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55.8%, 200-400만원이 37.2%, 400만원 이상이 8.0% 수집되었다.

2. 연구도구

1) 영아용 예비 가정환경 척도 구성

가정환경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모든 조건과 자극과 그 작용을 의미하는데(송인섭·안혜진·김나현·정미경, 2006),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이러한 가정환경을 지위 또는 구조변인과 과정변인으로 나누었다(정원식, 1986; Dave, 1963; Wolf, 1964). 여기서 지위변인 또는 구조변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직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아동	연령	0-5개월	35(14.0)	
		6-11개월	42(16.8)	
		12-17개월	41(16.4)	
		18-23개월	44(17.6)	
		24-29개월	45(18.0)	
		30-35개월	43(17.2)	
		성별	남	120(48.0)
여	130(52.0)			
양육자	부	모		
	부모의 교육수준	고졸미만	20(8.0)	20(8.0)
		고졸	104(41.6)	112(44.8)
		전문대졸	49(19.6)	63(25.2)
		대졸	60(24.0)	50(20.0)
		대학원 이상	17(6.8)	5(2.0)
		부모의 직업	무직(주부)	21(8.4)
	노동직		33(13.2)	7(2.8)
	기술직		33(13.2)	3(1.2)
	자영업		50(20.0)	5(2.0)
	사무직		63(25.2)	5(2.0)
	전문 기술직		32(12.8)	5(2.0)
	관리직		10(4.0)	1(0.4)
	전문직		8(3.2)	8(3.2)
	가정의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	60(25.0)	
		101-200만원	77(30.8)	
201-300만원		67(26.8)		
301-400만원		26(10.4)		
401만원 이상		20(8.0)		

업과 교육, 출생순위 및 자녀수 등을 의미하며, 과정변인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일컫는 것으로 부모의 가치지향, 자녀양육방식, 가정의 교육 활동 등을 말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지위나 구조적 변인으로서 가정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양하고 가정환경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과정’적인 변인으로서의 가정환경을 측정할 도구를 만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바, 부모의 양육행위나 부모-자녀 상호작용 등을 예비 가

정환경 척도의 대상 문항들로 결정하였다. 가정환경의 과정적 측면을 의미하는 하위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 IT-HOME(Caldwell & Bradley, 2003)과 이영(1985)이 한국에서 타당화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및 Stevens와 Bakeman(1985)과 Fuligni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검토한 결과, 영아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과 ‘수용성’이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측면이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영아를 혼육하기 위해 요구되는 ‘모델링’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된 하위 항목도 도출되었다. 여기에 기존 척도들이 영아의 지적발달 혹은 학습 촉진을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7세 이하의 유아 92%가 조기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기숙, 2001)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하위 항목이라고 판단되어 학습촉진과 관련된 하위 항목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영아의 발달실태에 대한 아동발달백서(한국아동학회·한솔교육문화연구원, 2001)와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연구(보건복지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기존의 척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가정의 내·외부의 물리적 환경과 아동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규칙적 양육의 측면을 하위 항목으로 더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구성된 예비 가정환경 척도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반응성과 수용성, 모델링, 학습촉진자극, 가정의 내·외부의 물리적 환경, 아동의 건강과 안전, 양육의 규칙성의 8개의 하위 항목 아래 영아기에 발달적으로 나타나거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총 7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 방식은 “예(1점)”, “아니오(0점)”의 이원 체제를 사용하였다. 이는 개발한 가정환경 척도의 문항에 구체적인 빈도나 수량이 기술되어 있어(예 : 일주일에 1-2회 역할놀이를 같이 한다.

미술작품이 2점 이상 있다) 점수를 부여하는 작업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양호하다고 해석된다.

2) IT-HOME

이 연구에서 개발한 가정환경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Caldwell과 Bradley(2003)가 개발한 IT-HOME(Infant/Toddler HOME)을 실시하였다. IT-HOME은 0-3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질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척도는 반응성(11), 수용성(8), 조직화(6), 학습자료(9), 관여(6), 다양성(5)의 6개 하위 항목으로 구성된다. IT-HOME을 수행하는 데에는 대략 1시간이 소요되며, 이 중 26개 문항은 면접자의 관찰로, 15 문항은 주양육자와의 면접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4문항은 관찰 및 면접 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관찰을 위해 면접자는 영아가 깨어있을 때 방문을 하였다. 구체적인 채점 기준에 따라 면접자는 각 항목에 대해 0이나 1점으로 채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 IT-HOME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영아의 인지능력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가정환경과 인지능력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곽금주와 동료들(2005)의 한국영아발달연구에서 사용된 영아의 인지능력 측정 문항 일부를 사용하였다. 영아의 인지능력은 영아의 연령에 따라 기본인지기술, 수리적 사고력과 과학적 사고력, 사회적 사고력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만 0세용과 만 1세용은 대상영속성, 모방, 문제해결, 물체탐색, 색개념, 표상으로 이루어진 기본인지기술 하위척도와 기하와 공간관계, 수개념으로 구성된 수리적

사고력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만 2세용은 모방, 기억책략, 문제해결, 물체탐색, 색개념, 표상으로 이루어진 기본인지기술 하위척도와 기하와 공간관계, 수개념, 측정으로 구성된 수학적 사고력, 과학개념을 묻는 과학적 사고력, 사회적 지식을 묻는 사회적 사고력 총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척도의 문항은 만 0세용 17 문항, 만 1세용 26문항, 만 2세용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들은 질문지 형태로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구성되었다. 어머니는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1점)', '아니다(0점)'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연구에서는 각 연령별로 비율점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영아의 인지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만 0, 1, 2세용 각각 Cronbach's $\alpha = .96, .97, .99$ 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4) K-CDI 아동발달검사

이 연구에서는 영아의 가정환경과 영아의 사회성, 자조행동, 신체(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언어 발달(표현언어, 언어이해)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하여 K-CDI(Korean Child Development Inventory) 아동발달검사를 사용하였다. K-CDI는 Ireton(1992)이 개발한 CDI를 김정미와 신희선(2006)이 국내에서 표준화한 척도이다. K-CDI는 부모가 평가하는 진단도구로, 부모가 현재 아동의 발달적 기능 수준을 평정한다. K-CDI 문항은 실제적으로 12개월 미만에서부터 만 6.5세 사이의 발달을 진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아동의 사회성, 자조행동,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표현언어, 언어이해, 그리고 글자와 숫자 영역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0-2세 영아에게는 글자와 숫자 영역이 해당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270개 문항들 중 각 하위척도로부터 가장 연령 구분력이 뛰어난 10개

의 문항씩 수집하여 제작된 70개 문항의 요약 척도 중 0-2세에 해당하는 60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검사는 질문지 형태로서 어머니가 보고하도록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발달이 양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8$ 이었다.

3. 연구절차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영아의 가정환경과 관련된 요인들을 기준으로 기존 척도와 문헌을 고찰하여 수집된 71문항을 아동학 및 가족학 현직교수 4명, 아동학 전공 박사 및 박사수료 5명, 아동학 및 유아교육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과정에 있는 시설장 및 보육교사 6명에게 측정문항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받았다. 여기서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 애매모호한 문항, 한국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 연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받은 21문항을 제외하였다. 50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작성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0-2세 영아의 어머니 7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대상자는 서울시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족과 해당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한 20개 문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50개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수정하여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본조사는 전국에 있는 영아를 자녀로 둔 가족을 임의 추출하여 전화로 조사협조 및 동의를 요청하였다. 동의한 가족에 대해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머니용 질문지 작성 및 IT-HOME 관

찰을 실시하였다. 총 271부의 질문지가 작성되었는데, 이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250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문항과 전체 척도와의 상관, 문항 제거 시의 내적합치도, χ^2 검증 및 Cramer's V 계수로 문항변별도를 산출하였다.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Varimax)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구성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문항양호도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50개의 문항들이 변별도에서 양호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전체 상관, 문항이 제거된 후의 α 값, χ^2 값과 Cramer's V 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전체와 현저하게 낮은 상관을 보이는 문항 3개를 제외하고(.15 이하), 문항이 제거된 후에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α 값)가 증가하는 문항 4개를 제외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분포를 토대로 전체 척도의 총점 기준 상위 30%와 하위 30% 두 집단 사이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의 차이를 χ^2 값을 통해 알아본 결과, 문항 5개가 .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마

<표 2> 문항양호도 분석 결과

문항 번호	평균	표준편차	문항- 전체상관	문항제의 시 α값	χ^2	Cramer's V
2	.93	.25	.34	.82	17.62***	.36***
5	.93	.26	.39	.82	19.04***	.38***
6	.90	.30	.34	.82	17.34***	.36***
9	.85	.36	.38	.82	27.97***	.46***
13	.71	.46	.36	.82	33.86***	.50***
15	.49	.50	.38	.82	49.88***	.61***
18	.63	.48	.44	.82	64.16***	.69***
25	.83	.38	.18	.82	18.78***	.37***
26	.85	.36	.33	.82	31.27***	.48***
28	.84	.37	.34	.82	24.79***	.43***
30	.79	.41	.40	.82	47.38***	.60***
32	.77	.42	.36	.82	21.29***	.40***
33	.27	.45	.35	.82	34.52***	.51***
36	.96	.21	.25	.82	9.59**	.27**
37	.89	.31	.26	.82	17.62***	.36***
38	.67	.47	.25	.82	22.23***	.41***
40	.75	.44	.25	.82	16.88***	.36***
42	.79	.41	.38	.82	38.25***	.53***
50	.41	.50	.34	.82	27.33***	.45***

지막으로 각 문항 점수와 총점(상위집단, 하위집단)간 상관관계정도를 보여주는 Cramer's V계수를 산출한 결과 일반적인 변별도 수용수준인 .25 이상이었다.

표 2는 전체 50개의 문항 중에서 문항양호도 분석을 통해 선택된 38개 문항 중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한 문항변별도 분석 결과이다.

2. 타당도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타당도와 공인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구성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는데, 이는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된 문항들 중에 한국 영아들에게 유의미한 가정환경을 이루는 요소를 탐색하고 기존 척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영아의 발달변인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확인하였다. 공인타당도는 기존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한 IT-HOME(Caldwell & Bradley, 2003) 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1) 구성타당도

척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구조가 요인분석에 적합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KMO) 측도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KMO 수치는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문항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소 0.5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하며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요인분석의 의미가 있음을 나타낸다(허만형, 2001, p.

528). 38개 문항으로 구성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KMO 측도값은 .74로 높게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문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는 2221.25($df = 703$)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p < .001$) 유의미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앞서 문항양호도를 통해 변별된 38개 문항의 하위요인 및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유치가 1 이상인 요인의 수를 고려하는 것 이외에 스크리 검사와 누적 분산비율을 고려하였으며, 직교회전을 실시하여 요인행렬의 요인 변량을 최대화하여 각 요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요인의 수를 추정하기 위해 요인수를 제한하지 않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을 초과하는 요인은 16개로 탐색되었고, 스크리 검사 결과는 6~7개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최초로 문항을 8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기에, 6개, 7개, 8개 요인수를 지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6개의 요인구조가 7개, 8개의 요인구조보다 더 많은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6개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요인수를 6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30 이하)과 타 요인과 .30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보이는 2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36개 문항으로 6개 요인수를 지정하여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번째, 6번째 하위 요인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영아의 경험의 다양성을 다루는 문항들과 건강 관련 문항이 함께 묶이는 등 개념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요인들이라 이에 해당하는 7개 문항을 제외하였다. 남은 29개 문항으로 요인수를 4개

지정하여 재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부하량이 낮은 문항(.30 이하)과 타 요인과 .30 이상의 요인부하값을 보이거나 개념적으로 각 요인에 포함될 수 없는 문항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하여 추가로 10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4개 요인구조의 19개 문항을 확정되었으며, 전체 변량의 43.16%를 설명하였다. 각 요인에 속한 문항, 요인구조계수 및 요인 설명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요인1은 전체 변량의 12.91%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총 7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이 문항들은 영아의 다방면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놀잇감이나 도구의 보유여부와 양육자가 영아와 역할놀이와 같은 발달 촉진 놀이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발달 촉진 자극’으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전체 변량의 11.33%를 설명하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요인에는 양육자가 평소에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지, 영아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고 영아의 요구를 잘 알아차리고 빨리 반응해주는지, 영아의 고유한 발달 수준에 맞추는지를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결국 양육자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영아의 발달수준과 욕구를 잘 파악하여 그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므로, 요인2를 ‘반응적 상호작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3은 전체 변량의 9.81%를 설명하며 3개의 문항이 요인3으로 추출되었다. 요인3에 포함된 문항은 양육자가 영아가 이웃 사람이나 친척들에게 인사를 하거나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간단한 언어예절(존댓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가르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요인은 영아기에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인 양육자 및 양육자와 가까운 성인들(가족, 친척, 이웃, 지인)과 사회적 상호작

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아의 언어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영아의 ‘언어적 상호작용 장려’라고 명명하였다. 요인4는 전체 변량의 9.10%를 설명하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요인4

에 포함된 문항들은 영아에게 규칙적인 하루스케줄이 있는지,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도록 하는지, TV시청시간을 정해 놓았는지를 묻고 있다. 이러한 문항들은 영아들의 하루 일과나 훈육

<표 3>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하위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발달 촉진 자극 (요인1)	30 집에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도구(소꿉놀이, 인형, 병원놀이 등)가 있다.	.70			
	26 집에 블록 장난감이 있다.	.64			
	28 집에 표현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각종 미술도구, 악기 등)가 있다.	.59			
	15 나는 아이가 다양한 역할을 해 볼 수 있도록 일주일에 1-2회 역할놀이(소꿉놀이, 병원놀이 등)를 같이 한다. ※ 월령이 어린 경우, 양육자가 영아의 시야에서 손인형, 동화책 등을 가지고 역할극을 시연하는 경우도 포함됨.	.56			
	18 나는 아이의 수·공간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해 일주일에 1-2회 수·조작 놀이(블록, 퍼즐, 은물, 가베 등)를 같이 한다. ※ 월령이 어린 경우, 영아가 바라보고 있는 모빌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블록, 퍼즐, 은물, 가베 등을 양육자가 영아의 시야에서 보여주며 도형이나 수 명칭 등을 이야기해주는 경우도 포함됨.	.54			
	33 집 안에 미술작품(장식을 위해 구입한 미술작품 혹은 아이가 만든 작품)이 2점 이상 전시되어 있다.	.50			
반응적 상호 작용 (요인2)	32 집에 신체놀이나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도구(영아용 자전거, 공 등)가 있다.	.46			
	9 나는 평소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 월령이 어린 경우,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위를 파악하여 양육자가 영아에게 말을 걸어주는 행위가 포함됨.	.71			
	5 나는 평소 아이의 질문에 잘 대답해주는 편이다. ※ 월령이 어린 경우, 영아가 관심을 보이거나 오래 쳐다보는 등 영아가 궁금해하는 사물이나 현상이 있음을 양육자가 언어적으로 표현해주고 이에 반응하는 것을 포함함(예 : 오투기 인형이 누웠다 일어났다... 신기해? 오투기 인형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 선수란다).	.60			
	2 나는 평소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이다.	.56			
	42 나는 아이 앞에서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51			
	6 나는 평소 아이의 요구를 잘 알아차리고 빨리 반응해주는 편이다.	.50			
	13 나는 아이의 고유한 발달 수준에 맞추어 아이의 지적 발달을 돕기 위해 노력한다(개인차를 고려하여 우리 아이만의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46			

<표 3> 계속

하위 요인	문항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언어적 상호 작용 장려 (요인3)	36 나는 아이가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을 만났을 때 인사하도록 한다.			.84	
	37 나는 아이가 이웃 사람들이나 친척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이야기 하도록 한다.			.80	
	25 나는 아이에게 간단한 언어예절(존댓말,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가르친다. ※ 월령이 어린 경우, 영아에게 모델링이 되기 위해 존댓말을 사용하거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사용해 보이는 경우를 포함함.			.57	
규칙적 양육 (요인4)	40 나는 아이가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자도록 한다.				.83
	38 아이에게 규칙적인 하루스케줄(식사, 자는 시간, 놀이 시간, 산책 등)이 있다.				.76
	50 나는 아이의 TV 시청시간을 정한다. 예) TV 보는 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한다. ※ 아이가 스스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월령이 되지 않을 시에는, 영아가 있는 공간에서 TV를 틀어놓는 등 영아가 TV에 노출되는 시간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49
고 유 치		2.45	2.15	1.86	1.73
설명변량(%)		12.91	11.33	9.81	9.10
누적변량(%)		12.91	24.24	34.05	43.16

에 있어 규칙성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으므로 ‘규칙적 양육’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분석에서 나온 구성 문항을 토대로 전체 총점과 요인 점수와의 상관 및 요인 점수 간 상관계수를 통해 척도의 요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표 4 참고). 각 요인과 총점과는 .51에서 .81의 상관을 보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요인간의 상관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과 총 축도가 타당한지를 영아의 가정환경 척도가 영아가 속한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영아의 발달변인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 요인 간 상관 및 총점과 요인 간 상관

하위요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총점
요인1	1.00				.81***
요인2	.35***	1.00			.70***
요인3	.33***	.29***	1.00		.51***
요인4	.29***	.30***	.24***	1.00	.56***

*** $p < .001$.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의 발달변인 및 IT+HOME과 가정환경 간의 관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총점	
소득수준	.20**	.17**	-.08	.02	.16*	
어머니교육수준	.14*	.25***	-.07	.17**	.22***	
아버지교육수준	.12	.19**	-.03	.10	.16**	
아동 발달	인지	.36***	.18**	.22***	.12	.34***
	사회성	.41***	.16**	.49***	.22***	.39***
	자조행동	.41***	.11	.41***	.20***	.34***
	대근육운동	.38***	.10	.42***	.16**	.32***
	소근육운동	.41***	.13*	.35***	.20**	.33***
	표현언어	.38***	.12*	.35***	.16**	.31***
	언어이해	.42***	.16**	.39***	.21***	.37***
IT+HOME	.41***	.30***	.14*	.17**	.41***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점수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가정환경 척도의 총점을 놓고 볼 때, 가정환경은 소득수준($r = .16, p < .05$), 어머니 교육수준($r = .22, p < .001$)과 아버지 교육수준($r = .16, p < .01$)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발달 촉진 자극(요인1)’은 소득수준($r = .20, p < .01$)과 어머니 교육수준($r = .14, p < .05$)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졌고, ‘반응적 상호작용(요인2)’은 소득수준($r = .17, p < .01$)과 어머니($r = .25, p < .001$)와 아버지의 교육수준($r = .19, p < .01$)과 모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규칙적 양육(요인4)’는 어머니 교육수준($r = .17, p < .01$)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아의 가정환경 척도는 영아의 발달변인과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가정환경 척도의 총점은 영아의 인지($r = .34, p < .001$), 사회성($r = .39, p < .001$), 자조행동($r = .34, p < .001$), 대근육운동($r = .32, p < .001$), 소근육운동($r = .33, p < .001$), 표현언어($r = .31, p < .001$), 언어이해($r = .37, p < .001$)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그 중에서 사회성 발달과

가장 큰 관계를 보였다. 하위 요인들 중에는 ‘발달 촉진 자극(요인1)’과 ‘언어적 상호작용 장려(요인3)’은 모든 발달변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안정적으로 보여주었고, ‘규칙적 양육(요인4)’와 ‘반응적 상호작용(요인2)’도 대부분의 발달변인과 대체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발달 촉진 자극(요인1)’은 다른 요인들보다 영아의 인지능력과 언어발달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언어적 상호작용 장려(요인3)’은 영아의 사회성 발달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영아의 가정환경이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양호하다는 점(곽금주·유체민 외, 2007; 윤형주·조복희, 2004; 이주리, 1992; 이지연·곽금주, 2009; Bradley et al., 1977; Brooks-Gunn & Duncan, 1997)을 보여주고, 가정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수준이 높다는 점(김종순, 1990; 이영, 1980; Bradley et al., 1977; Bradley et al., 1989; Fuligni et al., 2004; Hanson, 1975; Linver et al., 2004; Ramey et al., 1984; Stevens & Bakeman, 1985)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가 영아의 가정환경

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2) 공인타당도

영아의 가정환경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IT-HOME 총점과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함께 제시하였다.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IT-HOME 척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T-HOME의 총점은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r = .41, p < .001$), 4개의 하위 요인들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가 영아의 가정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다. 하위 요인들 중에서 ‘발달 촉진 자극(요인1)’($r = .41, p < .001$)과 ‘반응적 상호작용(요인2)’($r = .30, p < .001$)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에 비해 ‘언어적 상호작용 장려(요인3)’($r = .14, p < .05$)과 ‘규칙적 양육(요인4)’($r = .17, p < .01$)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요인3과 요인4가 한국의 양육문화를 반영하는 결과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신뢰도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척도와 각 요인별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았다. 척도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는 .75로 높게 나타났고, 요인별로 요인1은 .69, 요인2는 .64, 요인3은 .68, 요인4는 .57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가 0.60 이상이면 충분하며(Nunnally & Bernstein, 1994), 측정척도 속에 하위척도가 포함될 경우 낮은 내적 합치도 계수가 산출될 수 있으므로(차배근, 1985), 이 연구에서 도출된 척

<표 6>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s α
요인1	7	.69
요인2	6	.64
요인3	3	.68
요인4	3	.57
전체	19	.75

도 및 하위 척도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척도 및 각 요인 내 문항 간 동질성이 입증되었다(표 6 참고).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한 관찰용 가정환경 척도가 아니라 최근 한국의 문화적 배경에서 부모들이 응답할 수 있는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만 0-2세 영아가 포함된 250가족을 대상으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를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여기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용 가정환경자극 척도 문항의 χ^2 값과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의 양호도를 알아본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문항 구성은 양호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다. 4개의 요인은 ‘발달 촉진 자극’, ‘반응적 상호작용’, ‘언어적 상호작용 장려’, ‘규칙적 양육’이며, 전체 변량의 43.16%를 설명한다. 기존에 개발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하위요인

구성과 비교해 볼 때, ‘발달 촉진 자극’ 요인은 IT-HOME(Caldwell & Bradley, 2003)의 ‘학습 자료’와 ‘관여’ 요인과 이영(1985)의 ‘적절한 놀이 감의 구비 상태’ 요인, Stevens와 Bakeman(1985)이 명명한 ‘지적 발달 지원’ 요인 및 Fuligni와 동료들(2004)이 명명한 ‘학습과 문해를 위한 지원’ 요인과 유사하다. ‘반응적 상호작용’ 요인은 IT-HOME(Caldwell & Bradley, 2003)의 ‘반응성’과 ‘수용성’ 요인과 이영(1985)의 ‘어머니의 정서적·언어적 반응성’과 ‘어린이의 행동에 대한 훈육적 태도’ 요인, Stevens와 Bakeman(1985)이 명명한 ‘언어적 반응’과 ‘비차별’ 요인 및 Fuligni와 동료들(2004)이 명명한 ‘영아에 대한 온정’과 ‘비적대성’ 요인과 유사하다. 반면에 ‘언어적 상호작용 장려’ 요인은 Fuligni와 동료들(2004)이 ‘부모의 언어적 기술’이라고 명명한 요인과 유사하지만, 단순히 부모가 언어적인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을 넘어 영아기에 중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대상인 양육자 및 양육자와 가까운 성인들(가족, 친척, 이웃, 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영아의 언어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요인이다. 즉, 이 요인은 영아의 언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올바른 언어생활습관을 갖추어 주 상호작용 대상자인 성인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국 부모들의 의도가 담겨있는 복합적인 요인이다. 또한 여기에는 한국 부모들의 집단주의적 양육가치, 즉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그 집단 속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양육에서 형성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태도(김미정, 2001)도 반영되어 있다. 영아의 사회성과 언어 발달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생후 첫 시기부터 주변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언행을 하는 한국의 유교적 문화를 사회화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다. ‘규칙적 양육’ 요인 또한 IT-HOME(Caldwell & Bradley, 2003)의 ‘조직화’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영아의 일상생활을 조직화해준다는 측면에서 더 나아가 영아의 올바른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대해 일관되게 훈육하고자 하는 한국 부모들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자녀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동서양에 걸쳐 차별적이지 않겠지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환경 척도에서 이 요인이 도출된 것은 한국 문화가 영아기부터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척도의 하위 요인과 구성이 다르며, 1980년대에 한국 문화에서 타당화된 척도의 하위 요인 구성과도 달라, 현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영아가 성장하는 가정의 양육 문화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도출된 가정환경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및 영아의 발달변인과 관련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소득수준과 학력수준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곽금주·유제민 외, 2007; 윤형주·조복희, 2004; 이주리, 1992; 이지연·곽금주, 2008; Bradley et al., 1977; Brooks-Gunn & Duncan, 1997)을 고려한다면,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가 부모의 소득수준 및 학력수준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 척도가 영아의 발달을 잘 예측할 것임을 알려준다. 또한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인들이 가정환경 변인들과 관련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김정미·곽금주, 2007; 이지연·곽금주, 2008; 장영애, 1995; Bradley et al., 1977; Bradley et al., 1989; Schmitz, 2005; Stevens & Bakeman, 1985)과도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가정환경 점수

와 영아의 발달 간의 상관관계를 밝힌 이영(1980)과 Stevens와 Bakeman(1985)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영아의 발달변인과 관계를 가진다. 지적 발달과 학습 및 문해를 지원하거나 적절한 놀이 자료를 제공하는 하위요인이 영아의 인지 및 언어 발달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중순, 1990; 이영, 1980; Bradley et al., 1977; Fuligni et al., 2004; Linver et al., 2004; Stevens & Bakeman, 1985)처럼, ‘발달 촉진 자극’은 다른 요인들보다 영아의 인지능력과 언어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는 영아의 부모가 영아의 발달을 촉진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발달 촉진을 목표로 함께 놀이를 함으로써 영아의 인지·언어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언어적 상호작용 장려’는 영아의 사회성 발달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영아가 중요한 성인들과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모가 발달적 진전을 격려하는 것이 영아의 행동문제를 가장 잘 예측했다는 Linver와 동료들(2004)의 연구결과에서도 그 설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정환경 척도 점수가 부모의 소득수준과 교육수준 및 영아의 발달변인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가 타당함을 입증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의 공인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IT-HOME과 관련 있다.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Caldwell과 Bradley(2003)이 개발한 IT-HOME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여,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19개 문항으로도 한국의 가정환경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치도의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이 연구에서

개발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신뢰롭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영아용 가정환경 척도는 한국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을 측정하기에 타당하고 신뢰로운 도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는 19개라는 적은 수의 문항과 현대 한국 문화에서 개념적으로 의미 있는 요인으로 구성된 가정환경 척도가 영아의 가정환경의 질을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재검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지 못했으며, 어머니를 통해 가정환경과 영아의 발달을 모두 평가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 수가 많지 않아 하위영역에 따라 높은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척도의 요인이 설명하는 변량의 크기도 크지 않은 제한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통해 후속연구에 대해 제안해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척도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재검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는 작업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를 통해 가정환경과 영아의 발달을 평가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평가자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조사대상자 수를 더 많이 확보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 높이는 보완 작업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가정환경 변인과 다양한 영아의 발달 변인들 사이의 횡·종단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가정환경이 속한 지역사회 환경(도시, 농촌 등)의 영향 및 대상 영아의 특수성(빈곤 영아, 장애 영아 등)을 반영한 연구도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전국의 0-2세가 속한 가정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표본

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저소득 가정을 상당수 포함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정환경의 질적 차이를 연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성장하는 영아들과 그 부모들에게 유의미한 가정환경이 무엇인지를 밝혀낸 연구이며, 이는 보육현장에서 영아들을 돌보는 보육교사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적은 수의 문항으로 한국 영아의 가정환경의 질을 부모가 간편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의 초기의 가정환경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여 이후 발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가정환경의 질적 측면을 조기에 측정하여 아동의 발달 문제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곽금주 · 김정민 · 유제민(2007). 만 3세 아동에 대한 빈곤, 부모변인, 가정환경 및 아동발달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0(3), 83-98.

곽금주 · 유제민 · 김정민(2007). 빈곤 아동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탐색 : 만 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0(1), 1-19.

곽금주 · 성현란 · 장유경 · 심희옥 · 이지연 · 김수정 · 배기조(2005). **한국영아발달연구**. 서울: 학지사.

김미정(2001). 어머니의 양육가치, 양육목표, 양육신념 및 조정행동과 유아의 순응행동 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정미 · 곽금주(2007). 3-6세 유아를 위한 가정환경 자극 척도(EC-HOME)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8(1), 115-128.

김정미 · 신희선(2006). **K-CDI아동발달검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김종순(1990). 영아의 애착, 자아인식 및 사물영속성

보존능력과 가정환경의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 **교육심리연구**, 4(1), 129-169.

김혜경 · 조성연(2002). 가족형태에 따른 가정환경(HOME)과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 **한국가족복지학**, 7(2), 3-16.

민하영 · 이영미(2009). 어머니의 집단주의적 양육가치가 유아의 공격 및 불안행동에 미치는 영향 :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가족과 문화**, 21(4), 21-39.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송인섭 · 안혜진 · 김나현 · 정미경(2006). 가정환경 구조모형의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0(1), 1-19.

우남희 · 김현신(2004). 한국 조기교육의 과거와 현재. **생활과학연구**, 9, 169-180.

윤형주 · 조복희(2004).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식과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이기숙(2001).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유아교육 혁신. 교육인적자원부 유아교육정책과제 2001-24.

이소은(1999). 한국의 문화와 아동발달. **생활과학연구논총(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 53-64.

이영(1980). 3세이하 어린이의 가정환경과 발달수준과의 관계. **연세논총**, 17(1), 249-264.

이영(1985). 0-3세용 가정환경자극검사(HOME)의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연세논총**, 21, 379-397.

이완정 · 현온강(1994). 영아, 걸음마기 자녀 양육신념의 세대간 비교연구 : 상호의존성과 독립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4), 97-110.

이주리(1992). 가정환경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13.

이지연 · 곽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3), 151-165.

장영애(1984).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용. **대한가정학회지**, 22(4), 173-182.

장영애(1987).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 관계 : 인과모형분석. **아동학회지**, 8(2), 17-44.
- 장영애(1995).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4), 173-188.
- 장영애 · 서용선(1983).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와 학령 전 아동의 발달 수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 1-10.
- 정원식(1986).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과학출판사.
- 차배근(1985). **사회과학 연구방법**. 서울: 세영사.
- 한국아동학회 · 한솔교육문화연구원(2001). **아동발달 백서**. 서울: 한솔교육.
- 허만형(2001). **통계분석론**. 서울: 법문사.
- Bradley, R. H., Caldwell, B. M., & Elardo, R. (1977). Home environment, social status, and mental test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6), 697-701.
- Bradley, R. H., Caldwell, B. M., Rock, S. L., Ramey, C. T., Barnard, K. E., Gray, C., Hammond, M. A., Mitchell, S., Allen, W., Siegel, L., & Johnson, D. L. (1989). Home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 A collaborative study involving six sites and three ethnic groups in North America. *Developmental Psychology*, 25(2), 217-235.
- Brooks-Gunn, J., & Duncan, G.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and youth.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Caldwell, B. M., & Bradley, R. H. (2003). *Home Inventory Administration Manual : Comprehensive Edition*. University of Arkansas at Little Rock.
- Dave, R. (1963).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educational achievement*. Unpublishe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Fulgini, A. S., Han, W., & Brooks-Gunn, J. (2004). The Infant-Toddler HOME in the 2nd and 3rd years of life.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4(2-3), 139-159.
- Hanson, A. R. (1975).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home environmental measures related to IQ. *Child Development*, 46, 470-480.
- Ireton, H. (1992). *Child Development Inventory, Manual*. Minneapolis, MN : Behavior Science Systems.
- Nunnally, J. C., & Bernstein, I. H. (1994). *Psychometric Theory* (3rd Ed.). NY : McGraw-Hill.
- Linver, M. R., Martin, A., & Brooks-Gunn, J. (2004). Measuring infants' home environment : The IT-HOME for infants between birth and 12 months in four national data sets. *Parenting : Science and Practice*, 4(2-3), 115-137.
- Ramey, C. T., Yeates, K. O., & Short, E. J. (1984). The plasticity of cognitive performance : Insights from preventive intervention. *Child Development*, 55, 1913-1925.
- Schmitz, M. F. (2005). Cultural and acculturation differences in trajectories of home environment inventory scores for latino children and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26(5), 568-583.
- Shaffer, D. R. (2005). *Developmental Psychology : Childhood and Adolescence*. Singapore : Thomson Learning (6th ed.). 송길연 · 장유경 · 이지연 · 정윤경 역(2005). **발달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Stevens, J. H., & Bakeman, R. (1985). A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HOME scale for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1196-1203.
- Wolf, R. (1964). *The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environmental process variables related to intellig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2010년 6월 30일 투고, 2010년 9월 1일 수정
2010년 9월 10일 채택